



비료와 식량

2023년
8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무기질비료 상식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농협 자재 삼총사 하나로 뭉친다...‘농협에코아그로’ 탄생

- 시장 성장 침체기, 규모화 전략
- 전국 단위 공급·영업망 갖추고, 다양한 품목 신속 배송 서비스
- ODM 목표로 개발역량도 강화, “친환경 농자재 시장 선도할 것”

농협의 자재 삼총사 ‘농협아그로’ ‘농협흙사랑’ ‘상림’이 ‘농협에코아그로’라는 이름으로 맞을 올리고 본격 항해에 들어간다. 농가 인구와 경지 이용 면적이 줄어들고 세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재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농협 자재업체들이 힘을 모아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다. 농협에코아그로의 통합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본다.

◆ 출범 배경은 = 기존 농협아그로와 농협흙사랑·상림은 각각 다른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자재 업체였다. 농협아그로의 주요 품목은 과일봉지와 반사필름 등이었고 농협흙사랑은 가축분퇴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삼 전용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왔다. 상림은 유기질비료와 상토·바이오차 등을 생산·공급하는 업체였다.

문제는 이같은 소규모 자재 시장에 지속적으로 찬바람이 불어왔다는 점이다. 과수 생산량과 재배면적·농가수에 정체가 일어나며 과일봉지와 반사필름을 주력 상품으로 하던 농협아그로에도 경영 적신호가 켜졌다. 노동력·비용 절감을 위해 무봉지 재배가 늘어나는 현상 또한 경영 악재로 작용했다. 농협아그로 측은 마스크·친환경포장재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매출 확대를 이뤘지만, 회사가 위치한 경북지역의 매출 의존도가 큰 데다 유통상품 이익률이 낮아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농협흙사랑·상림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줄어들며 유기질비료 시장 전체가 위축됐고 각각 강원·충청과 호남, 즉 특정 지역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 전문가 컨설팅 “3사 통합이 답” = 이에 농협경제지주와 해당 3사,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컨설팅이 지난해 9~11월 이뤄졌다. 전문가의 조언은 “성장성과 점유율이 낮은 농업 관련 시장에서 농자재 3사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편의 방식은 ‘자체 통합’이었다. 3사가 통합하면 규모화·전문화·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전국적인 농자재 공급망·유통망 확대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농자재 공급망·영업망을 통합하면 취급 품목은 다양해지고, 농민들에겐 더 편하고 빠르게 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복안에서다. 전국 단위 통합된 영업망으로 농자재 3사 간 교차 판매가 활성화되고 소량·다품목은 중간 물류기지에서의 재분류를 통해 공동배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 닷 올린 농협에코아그로, 친환경농자재 ‘닷’ 달다 = 1일 법적 통합 절차를 마치고 19일 출범식을 앞둔 농협에코아그로는 앞으로 친환경농자재 시장 선도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포장재·혼합유기질비료·바이오차 외에 유박비료와 다양한 바이오차 상품 확대, 미생물제제 등의 개발과 판매를 통해 친환경농자재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제품 연구·개발, 즉 R&D 영역 통합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도 이같은 맥락 때문이다. 기존엔 단순 위탁 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품질관리 위주의 업무만 수행했지만 향후엔 외부 협력, 자체 개발 역량 확보 등을 통해 제조자 설계 생산(ODM)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또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와 남해화학, 농협케미칼, 통합 3사가 함께 R&D 협의회를 이뤄 제품 기획과 개발 설계, 기술·자원 확보, 생산과 운영관리 등을 함께 할 계획도 있다.

※ 농민신문(2023.7.17.)기사내용 인용

□ (주)조비

○ (주)경농·국립식량과학원 노지 스마트팜 기술협력



▲ 지난 25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주)경농은 전북 김제 경농 미래농업센터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협력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왼쪽부터 이승연 경농 사장,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국내 최대규모의 농산업기업 (주)경농과 함께 노지 스마트팜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립식량과학원과 경농은 25일 전북 김제 경농 미래농업센터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협력 및 현장 확산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경농은 △밭작물 영상진단기술 및 노지 스마트농업 현장

실증 △양·수분 관리 등 노지 스마트농업 패키지 기술 보급 확대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기관 간 협력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노지 스마트 요소 기술 개발 및 농업현장 실증을 담당하고, 경농은 노지 스마트농업 패키지 기술의 들녘 단위 현장 보급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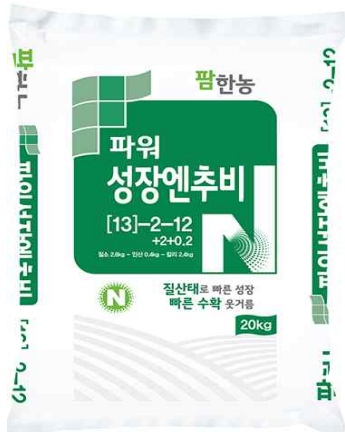
국립식량과학원과 경농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량작물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팜은 시설하우스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최근 노지작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경농은 그동안 시설하우스에서 쌓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북안동 사과 스마트팜, 괴산 콩 스마트팜 등 다수의 노지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수행해 노지 스마트팜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때문에 이번 식량작물 스마트팜 기술협력에서도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체결식에 참석한 이승연 경농 사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지 스마트팜 사업을 여러 차례 주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식량작물에서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더욱 발전된 영상진단 및 양·수분 관련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고효율 스마트농업 패키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농기자재신문(2023.7.28.)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비료제품 '파워성장엔 추비'



팜한농은 8월 추천 제품으로 종합살충제, 양파 종자, 비료 제품을 소개했다.

■ 파워성장엔 추비 = 속효성인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를 함유해 양분의 흡수 이용률이 높고 조기 수확 및 수확량 증대에 효과적이다. '파워성장엔 추비'를 시비하면 질산태 질소가 작물의 초기 성장을 돕고, 생육 후기에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오랫동안 작물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입자 하나에 인산, 칼륨, 고토, 붕소, 칼슘, 규산 등 작물 생육에 필요한 다양한 양분이 골고루 들어 있어 '파워성장엔 추비' 하나만으로도 균형있는 시비가 가능하다.

■ 스트라이크골드 양파 = 6월 중순에 수확할 수 있는 중만생계 양파로 엽색이 진하고 잎이 가늘고 길쭉하며, 잎 꺾임이 적다. 구의 모양은 고구형으로 구피색이 매우 진하고 균일도와 수량성이 우수하다. 도복이 균일하게 진행되며, 저장성이 매우 우수해 오랫동안 저장하기 좋은 품종이다.

※ 한국영농신문(2023.7.26.)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드론전용비료 통해 노동력 절감·정밀농업 구현”

- 풍농, 액상형·입상형 2종 출시
- 1200평 살포에 5~10분 걸려



(주)풍농이 항공살포용 드론전용비료를 출시했다. 이들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 현장에 노동력을 절감하고 정밀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 항공살포용 엔피코 드론전용비료 2종은 액상형(드론NK806)과 입상형(드론NK402)으로 구분된다. 이미 경기 화성과 강원 삼척, 경북 칠곡 등에서 실시한 현장평가에서 기술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을 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우선 액상형인 드론NK806(18-0-6+붕소 0.1, 몰리브덴 0.0005) 제품은 고농도 수용성 액비로, 1병(4리터)을 넣으면 1200~1500평 농지에 빠르고 편리하게 시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 이 제품을 드론을 활용해 살포하면 5~10분(1200평 기준) 사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통상 동력살포기를 이용하면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작업시간이 현저히 감소한다.

또 고농도 질소양분과 칼리양분을 균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이 제품에는 붕소와 몰리브덴 등 미량요소가 함유돼 생리장해 결핍도 예방할 수 있다. 완전 수용성 액상 1병으로 공급되는 만큼 노즐 막힘없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

풍농비료 개발부 관계자는 “1200평에 일반 비료를 살포하려면 6포 정도 필요하고 작업시간도 통상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지금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작업하는 것보다 드론전용비료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시비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작물 생육향상과 농가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입상형인 드론NK402(34-0-12, 색상요소함유) 제품은 고농도로 질소양분을 함유한 벼 이삭 거름이다. 이 제품은 넓은 면적과 시비가 불편한 논과 과수원 등의 밭에서도 손쉽게 살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 기능성 색상 요소와 막힘없는 시비를 위해 품질안정제를 함유했고 항공 살포시 시비확인성과 시비효율이 뛰어나다. 여기에 고농도 속효성 질소와 칼리양분을 균형적으로 함유해 이삭수 확보와 등숙률 향상 등이 중요한 벼 후기 생육을 좋게 해주고 과수 원예류의 맛과 당도, 때깔 향상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풍농 측의 설명이다.

풍농비료 개발부의 관계자는 “드론전용으로 선보인 드론NK806, 드론NK402 비료는 고품질 이삭거름 등 옷거름용으로 제조된 특성화 제품이다. 앞으로도 풍농비료는 친환경 스마트 정밀농업 실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8.8.)기사내용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무기질비료 산업 당면 현안 및 상황 수시 보고(농식품부, 농협)
 -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존치 필요 요구 자료 제출 등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 참석(환경부, 8.3.)
 - 환경오염시설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8.8)
-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방안 모색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8.23.)
- 무기질비료 관련 농업경제연구 전문가 면담 및 업계 애로사항 전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24.)
- 회원사 및 농업전문지 기자 면담을 통한 소통 확대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 요소가격 요동...비료업계 ‘긴장’
 - 수요 많은 인도, 중국에 물량 몰려
 - 가격 상승기류...최근 10% 올라

- ‘장기화 될라’ 예의주시

무기질비료의 원료인 요소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요소 수요가 많은 인도와 중국 현지 영향으로 최근 약 10%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 비료업계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료업계에 따르면 중국 FOB(본선적재가격 또는 수출항본선인도가격)를 기준으로 요소 가격은 형태에 따라 톤당 350~380(프릴), 380~400달러(그래놀)에서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톤당 800달러를 상회했던 요소 가격은 320~35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하향세가 이어졌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A 비료업체 관계자는 “하락세였던 요소 가격이 7월 하순부터 상승세를 타면서 톤당 30~40달러 올랐다”며 “요소 수요가 많은 인도에서 오는 8월 9일 요소 100만톤에 대한 입찰이 예정됐다. 이를 앞두고 전 세계 요소 물량이 인도로 몰린 영향이 크다. 또 중국 내에서도 요소 수요가 높아지면서 요소 가격이 이례적으로 상승기류를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격 오름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A 비료업체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는 적어도 오른 수준의 가격대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료업계 한 관계자도 “요소 수출국 시각에선 한국의 요소시장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요소를 비싸게 사주는 국가에 우선 공급하려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받으려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직 국제시세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지금 보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비료업체와 농가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B 비료업체 관계자는 “380~400달러는 현지 가격이다. 여기에 해상운임비 등을 포함하면 실질 공급가격은 더 높아진다. 지난해 원료 가격 폭등 여파로 비료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업체들은 높은 가격에 구매한 비료 재고도 갖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요소 가격이 오르니 기업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료업체들은 비수기인 하반기에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상반기에 벌어서 하반기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올해 비료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벌어들인 게 없으니 하반기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 같다. 원료가격이 떨어야 하는데 오름세이니 더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 업체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은 비료를 팔아도 걱정이고, 팔지 않아도 걱정”이라며 “정부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비료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8.4.)기사내용 인용

□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수원이나 시설원에 농가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23.6월~)하여 경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 과수원 등의 액비 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 제외 〉

현행 과수원이나 시설원에농장의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액비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불가

건의 작물 재배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초지, 골프장 등의 로터리 작업 의무화 예외 장소에 "시설원에 농업 및 감귤 등 과수 농업"을 포함

부처의견 감귤원 등 과수원이나 시설 원예 등 액비살포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23.6월 이후 추진)

※ 행정안전부(2023.8.23.) 보도자료

□ (농식품부)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 농관원과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전국 농약 판매업체 점검
- 부정·불량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중점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2023.8.23.) 보도자료

□ 러시아 오데사 공격에 국제 곡물 시장 ‘출렁’...사료원료 시장 ‘빨간불’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파기에 이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중심지인 오데사를 집중공격하면서 사료원료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4일 시카고상품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은 부셸당 568달러로 전날보다 6% 가까이 오르며 마감됐다. 이에 따라 주간 옥수수 현물가격도 상승해 내림세를 보이고 있던 옥수수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해상 곡물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국제곡물 가격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는 10월 도착분 사료원료 가격에 인하요인이 있어 배합사료 가격 인하가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러시아의 공격으로 국제 곡물 가격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한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대체 수출로까지 공격하면서

곡물 수급 불안감이 확대돼 국제 곡물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농수축산신문(2023.7.25.)기사내용 인용

□ KOTRA "아프리카 농업 분야 틈새 진출 가능성... 기자재·기술 수출 유망“

○ ‘아프리카 주요국 농업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보고서 발간

KOTR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이하 SSA) 지역의 농업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프리카 주요국 농업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공급망 이슈로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아프리카 각국이 농업을 국가 개발의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분석 및 진단했다.

SSA 지역에서 농업은 전체 GDP의 17.3%를 차지하고 경제 인구의 52%가 종사하는 중추 산업으로, 각국의 경제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또 국토 대비 농지 비중은 남아시아(56.9%)에 이어 세계 2위 수준(42.5%)으로 세계평균(36.5%)을 웃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가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해 농업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수한 농업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SSA 지역은 고질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이는 농기계와 비료·농약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고 농업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나이지리아는 기계화율이 낮고 비료 사용량이 적으며 △탄자니아는 비료와 관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에티오피아는 농기계 및 기술도입 필요성이 커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SSA 지역 9개국의 국가별 유망 품목을 제시했고 81개의 에이전트 정보를 부록으로 포함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현지 시장 분석과 주요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농기구, 비료, 농산물 가공 및 포장기계 수출 △중기적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한 소형 농기계 보급, 중소형 농장 위주의 농업기술 이전 △장기적으로 신산업 분야(애그테크, 스마트팜, 친환경 비료) 미래시장 선점, 관개시설, 저장창고, 인프라 분야 진출 등 맞춤형 진출전략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아프리카 자유 무역협정(AfCFTA)의 발효로 향후 역내 농업 분야 무관세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농산물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중소형 농가의 생산성 향상 노력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포인트데일리(2023.7.26.)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농식품부)식물 신제품보호 출원 12,914품종 돌파

- 2023년 상반기 장미, 국화, 벼 등 246품종 출원

※ 농식품부(2023.7.27.) 보도자료

□ (환경부)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 예상

-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공개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
- 주요 감소 원인은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산업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농축수산 부문은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증가(한·육우 4.1%)를 벼 재배면적 감소(△0.7%)가 일부 상쇄하면서 배출량이 전년 대비 1.0% 늘어난 2,550만톤으로 추정됐다.

< 최근 5년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단위 : 백만톤 CO₂eq, %, 천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잠정)	'22년(잠정)
총배출량 (증감률)	727.0 -	701.2 (-3.5%)	656.2 (-6.4%)	678.1 (3.3%)	654.5 (-3.5%)
GDP (증감률)	18,120 -	18,527 (2.2%)	18,395 (-0.7%)	19,187 (4.3%)	19,688 (2.6%)
전환	268.4 -	248.7 (-7.3%)	218.1 (-12.3%)	223.7 (2.6%)	213.9 (-4.3%)
산업	260.8 -	256.4 (-1.7%)	246.7 (-3.8%)	262.1 (6.3%)	245.8 (-6.2%)
수송	98.1 -	101.0 (2.9%)	96.2 (-4.8%)	98.6 (2.6%)	97.8 (-0.8%)
건물	52.1 -	48.6 (-6.8%)	46.5 (-4.3%)	46.9 (0.8%)	48.3 (3.0%)
농축수산	24.7 -	24.9 (1.1%)	25.5 (2.1%)	25.2 (-0.9%)	25.5 (1.0%)
폐기물	17.4 -	16.5 (-5.2%)	16.7 (1.3%)	16.1 (-3.7%)	16.0 (-0.6%)
기타	5.5 -	5.0 (-9.1%)	6.6 (32.0%)	5.5 (-17.0%)	7.1 (29.1%)

※ 환경부(2023.7.25.) 보도자료

□ 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 가맹계약서 교부시 숙고기간 단축

※ 공정거래위원회(2023.7.18.) 보도참고자료

□ 2023년 유통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대리점계약을 마련·보급하여 대리점거래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 (대리점법 제27조의2) ①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간 실태조사는 의류, 식음료, 통신, 가구, 가전 등 18개 업종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되었다.

< 대리점분야 실태조사 실시 ·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

연도	대상 업종
2018	①식음료, ②의류, ③통신
2019	④제약, ⑤자동차판매, ⑥자동차부품
2020	⑦가구, ⑧가전, ⑨도서출판, ⑩보일러, ⑪석유유통, ⑫의료기기
2021	⑬기계, ⑭사료, ⑮생활용품, ⑯주류, ⑰페인트, ⑱화장품
2022	①식음료, ②의류, ③통신, ④제약, ⑤자동차판매, ⑥자동차부품, ⑦가구, ⑧가전, ⑨도서출판, ⑩보일러, ⑪석유유통, ⑫의료기기, ⑬기계, ⑭사료, ⑮생활용품, ⑯주류, ⑰페인트, ⑱화장품

한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 업종인 ‘비료’를 추가하여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2023.8.7.) 보도참고자료

□ 당정 “농축산물 선물가액 현실화”...명절엔 30만원까지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국민의 힘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엔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높여 농어민에 보탬을 주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설·추석 기간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던 2020년 추석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였던 2021년 설 기간에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당정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대상에 문화 관람권과 모바일 기프트콘 등 상품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쿠폰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국민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관련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현금·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이 5만원 내 선물 대상이어서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은 선물할 수 없다.

※ 농민신문(2023.8.20.)기사내용 인용

□ IMF "흑해곡물협정 중단으로 곡물가 최대 15% 상승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로 인해 곡물가가 최대 1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자들에게 흑해 곡물협정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충분한 곡물 공급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협정이 중단되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린차스 이코노미스트는 "(곡물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아직 평가하고 있지만, 10~15% 상승 범위가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중단을 선언해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이후 곡물가가 상승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IMF도 지난주 러시아의 곡물협정 탈퇴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7월 22일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전쟁 중에도 흑해를 통해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흑해곡물협정을 맺었다.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해상으로 33메트릭톤(MT)의 곡물을 수출해 흑해곡물협정이 세계 식량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4번째 기한 연장을 앞둔 지난 17일 협정 파기를 선언했고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를 연일 공격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흑해로 수출되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전량을 '연대 회랑'을 통해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2023.7.26.)기사내용 인용

□ 인도, 쌀 수출 금지...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 '심각'

인도가 쌀 수출을 금지하면서 세계 식량 시장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곡물 수송선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쌀 시장도 위기에 노출되면서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는 20일 "인도 시장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동 등으로 쌀생산이 어려워져 인도 쌀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11.5%, 지난 한 달 동안 3% 상승했다. 쌀 수출이 늘면서 국내에 공급이 줄자 국내 가격이

비싸진 것이다.

지난 9월 인도는 도정하지 않은 백미, 현미, 반정미, 도정미 수출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전 세계 쌀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의 쌀 수출국인 인도에 이어 태국과 베트남 쌀 가격도 올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쌀을 수입 비용도 증가해 수십억 명의 주식인 쌀 가격 상승이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 인도 수출량은 2위와 3위인 태국과 베트남과 비교해 약 2배 정도가 많다.

쌀 수출 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인도는 “식량 안보 요구를 충족하고 인도 정부 승인을 얻은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이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출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쌀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글로벌 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쌀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기후 변동으로 인도가 수출 금지를 결정하면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과 옥수수 등이 흑해 곡물거래 협정 폐기로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쌀 시장의 긴축은 연쇄적인 곡물 파동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쌀과 밀은 대체재로 여겨지는데 두 식량 모두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식품이나 비료를 수입하는 가난한 나라의 경우 식량난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

※ 글로벌이코노믹(2023.7.24.)기사내용 인용

□ 중국, ‘식량안보법’ 초안 나왔다

- ‘비축’ 대신 ‘농업 생산’ 방점, 창고 건설 등 종자 확보 강조
- 장려 곡물 미재배면 규제 적용

중국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양식안전보장법(식량안보법)’ 초안 심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국 정부의 핵심 농정 과제였던 ‘비축’ 기조 대신 ‘농업 생산’을 중시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 종자 확보와 경지 보호, 식량 부족 상황을 대비한 훈련 강화, 가족농과 농협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식량 자급 강화를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식량안보에 특화된 법률을 신설해 정부의 식량 확보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출된 초안은 11장 69조로 구성됐으며, 법률 총칙에는 ‘곡물은 기본적으로 자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쌀과 밀 등의 주식은 ‘완전 자급한다’고 적혔다. ‘식량 생산’을 다룬 장에서는 특히 종자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중요산업을 진흥할 것과 종자 유전자원고(창고) 건설 등의 내용이 중심이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성(省)’급 이상은 종자 비축 제도를 신설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요에 대응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가족농과 전문농협 등을 지원·육성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자주적인 비축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안 공표를 두고 중국 내 전문가들은 법률로 '비축 중시'에서 '생산 중시'로의 전환을 천명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농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만큼 "오히려 식량 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일본 역시 강력한 식량안보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농민신문(2023.7.26.)기사내용 인용

□ 日, 식량자급률 73%·대만 유사시 "일본인 절반 아사" 가능성도

- 캐나다·미국·프랑스 등은 식량자급률 100% 넘어
- 대만 유사시, 미중 전쟁 터지면 해상 보급로 끊겨

일본의 식량자급률이 선진국 중에서도 현저히 낮아 대만 유사시에 식량 위기로 인구 절반이 아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식량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어 자급률 향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27일 이같이 보도했다.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의 전체식량 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내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 산출한다.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73%. 100%를 넘긴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 대비 두드러지게 낮았다.

식량자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233%에 달한다. 호주는 169%·프랑스 131%·미국 121%·독일 84%·영국 70% 순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채소류 재배에 쓰는 화학비료나 씨앗 중 상당량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진짜 식량자급률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식량 위기는 국제 분쟁 및 식재료 수출국의 규제 강화, 신종 감염병을 동반한 물류 혼란 등이 발생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에서 유사시 상황이 전개될 경우를 특히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돌입하면 일본의 해상 교통로가 무너져 식재료를 수입할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마시타 가즈히토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 연구주간은 "대만 유사시 해외산 식재료가 완전히 끊길 경우, 일본인(약 1억2500만 명)의 절반 이상이 아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뉴스1(2023.7.28.)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최근 4년간 무기질비료 공급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6월	2023년 6월
생 산 량	2,142	2,397	2,039	1,235	1,026
출 하 량	2,054	2,429	1,860	1,189	1,040

※ 협회 회원사 기준(수출 포함)

□ 최근 4년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 가격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암모니아	273	270	437	672	957	936	580
D A P	314	349	485	749	948	859	638
염화칼륨	312	274	271	363	633	965	533
환 율 (매매기준율)	1,207	1,154	1,117	1,171	1,232	1,351	1,295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6 무기질비료 상식

□ 인산질비료 제조 원리 및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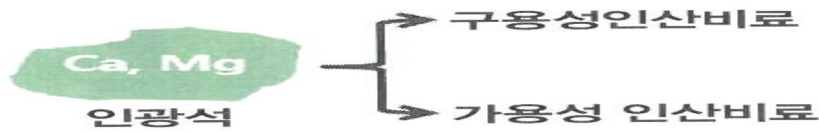
인광석은 유기물이 퇴적되어 나타나는 2차광상으로 인(P_2O_5)을 18~40% 함유하고 있어 인산 질비료(용성인비, 용과린, 과석 등)와 인산 용액을 생산하는 원료로 이용되고, 칼슘(Ca)도 함유되어 있어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산질비료 원료인 인광석 및 인광석 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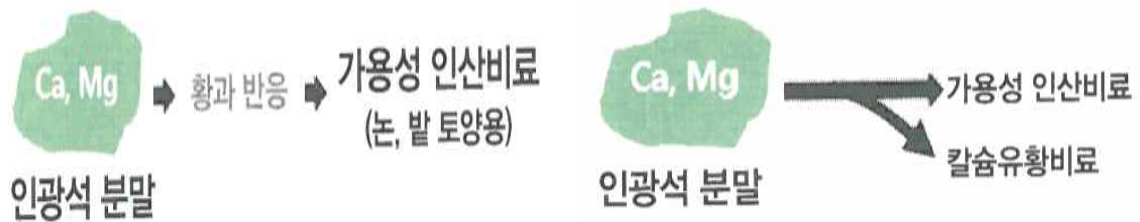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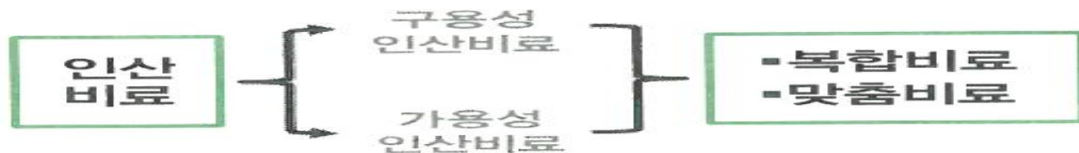
인광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어 구용성과 가용성 인산비료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 구용성 인산비료인 용성인비는 분말 인광석과 사문암을 혼합, 열을 가하여 만들고 주로 인산 고정력이 큰 개간지와 화산회토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 가용성 인산비료는 인광석 분말과 황을 반응시킨 후 석고를 분리하여 만들며, 물에 쉽게 녹아 작물의 초기 생육에 큰 도움을 주며 논 토양과 일반 밭토양에 사용됩니다.
 또한, 인광석의 칼슘(Ca)과 황(S)을 반응시켜 또 다른 비료인 칼슘유황비료가 부수적으로 생산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산비료는 복합비료와 맞춤형비료를 생산하는데 원료로 이용됩니다.



※ “흙과 비료이야기” 참고(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현해남 교수)

7 이달의 주요 인사

- 농림축산검역본부(2023.8.8.)
 - 운영지원과장 김재민(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 조비(2023.8.1.)
 - 마케팅 본부장 서용호(前 경농)

8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바작원예
- 성분량 : 13-6-[8]+2+0.2+10(수용성칼슘)
- 특성 및 효과
 - 질산태질소로 작물이 빠르게 흡수
 - 수용성칼슘 10% 함유로 병충해 경감 및 품질향상 보조
 - 황산가리 함유로 당도와 향이 좋아지고 저장 기간 증가

□ (주)조비



- 제품명 : 미래로22
- 성분량 : 22-6-7+1+0.1 (PCA, 완효성 함유)
- 특성 및 효과
 - 측조시비가 가능하고 시비량이 적어 노동력 및 영농비용이 절감
 - 작물의 뿌리 발생 및 발육을 좋게 하여 양분 흡수율을 높여 줌
 - 양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켜 작물에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 해주며, 비료 성분의 유실이 적고 비효가 오래 지속



비료와 식량

-2023년 8월호-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지 않아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큰 효과

□ (주)팜한농



- 제품명 : 뿌리조은
- 성분량 : 12-7-[9]+2+0.2+PAA (뿌리발육 아미노산, 황산 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기능성 PAA(뿌리발육 아미노산) 함유로 초기 뿌리활착을 도와 작물이 건강해지고 수확량이 증대
 - PAA는 뿌리발육 촉진, 양분 흡수 및 토양 보습효과를 증대시켜 고품질의 원예/과수작물을 생산
 - 근채류 및 인경채류(무, 감자, 마늘, 양파)의 생육 및 수확량 증대에 효과가 좋음

□ (주)풍농



- 제품명 : 하이롱NK
- 성분량 : 12-0-30, 고토1, 붕소0.1
- 특성 및 효과
 - 고농도 칼리성분 함유 벼 이삭거름 및 원예과수용 웃거름
 - 질소질 과다는 또는 도복발생 우려는 사용시 도복피해 경감
 - 작물의 잎, 줄기 조직을 튼튼히 하고 개화, 결실 촉진
 - 쌀맛과 미질향상 품질향상 효과
 - 칼리 부족시 발생하는 생리장해 예방, 내병성 증대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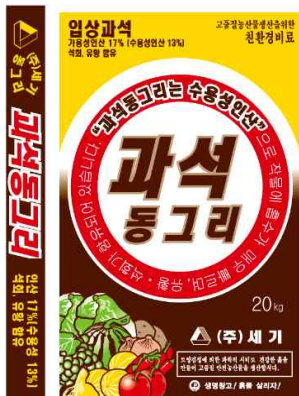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팥심명가
- 성분량 : 21-7-11+1+0.1(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함유한 고농도 21 복합비료
 - 토양분석자료를 근거로 개발된 고농도 맞춤비료
 - 과수, 원예작 밀거름으로 사용할수 있는 다목적 비료

□ (주)세기



- 제품명 : 과석동그리
- 성분량 : 가용성인산 : 17%, 수용성인산13%
- 특성 및 효과
 - 대부분이 수용성인산이므로 단경기 작물 및 저온기 작물의 초기생육을 조장하여 줌
 - 유향 및 석회결핍 토양에 매우 좋음
 - 시설재배 하우스에 사용하면 가스발생을 억제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발비료
- 성분량 : 12-5-(7)+3+0.3
- 특성 및 효과
 - 기능성 미생물 함유로 염류피해 및 병해충 경감에 도움
 - 부식산 함유로 토양 개량 효과 증대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작물의 품질(당도, 향) 향상

※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비료와 식량

-2023년 8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